

주일 설교 설교재

제목 : 나는 진정 보고 있는가?

본문 : 요한복음 9장 1-41절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며 육체와 영혼의 눈을 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자연적인 원인과 죄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3)

2.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린다

예수님은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3. 심문 속에서 깊어지는 믿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심문을 받을수록 더욱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25)

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4. 예수님께 발견되어 경배하다

사람들에게 쫓겨난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나타내시자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9:38)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치유의 최종 목적은 단지 시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5. 진정으로 눈먼 사람은 누구인가?

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체와 영혼의 눈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는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잘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1. 제자들은 맹인의 고난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질병은 자연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 다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은 고난 또는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2. 맹인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가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3. 치유받은 사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이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그의 부모는 사람들과 출교를 두려워하여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람의 평가, 관계의 손해,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5.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눈을 열어 달라고 구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